

전남 땅·기후에 적합한 벼 신품종 나온다

도농기원 쌀연구소 조기재배품목 '전남 1·2호' 선발

꽃가루 배양기술 현장 시험거쳐 4년내 신품종 등록

전남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벼 신품종 육성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 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자체 육종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조기재배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전남 1호'와 '전남 2호'를 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농업기술원은 타지역에서 개발된 품종이 따뜻한 전남지역 재배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접 '밥맛 좋은' 품종을 목표로 벼 신품종 개발에 나섰다. 신품종 벼 개발은 5만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쉽지 않은 '훨씬 까다롭다'는 이유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벼 재배농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및 조기재배에 알맞은 고품질 벼 품종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벼 세대 단축 온실, 2010년도 꽃가루 배양시설을 완공해 현재 활발한 벼 품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공교배를 시작으로 계통육성(7년)→생산력 검정(3년)→지역적응시험(3년) 등 12~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도 농업기술원이 짧은 시간에 신품종을 육성한 비결은 '세대단축 온실'을 이용한 꽃가루 배양기술에 있다. '세대단축 온실'은 겨울철은 온실에서, 여름철은 노지에서 일년동안 2번의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육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쌀 연구소 신서호 연구사는 교배해 얻은 종자를 과종해 개화한 꽃가루(F1)를 조직배양을 통해 식물체를 만들고 이를 농가포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겨울철 온실에서 키워나감으로써 6~7년의 짧은 기간에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벼 신품종 육종에 꽃가루 배양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농촌진흥청 국립 식량과학원 뿐이고, 지방연구기관으로서는 전남도가 유일하게 꽃가루 배양 실험실을 구축해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연구소가 운영하는 '세대단축 온실' 내에 2010년 가을 꽃가루 배양으로 육종한 벼가 피어하게 자라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가현장 실증시험에 이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적응 시험을 3년간 실시한 후 신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벼 신품종 육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 농업기술원 세대단축 온실에는 2010년 가을 꽃가루 배양으로 얻은 식물체 651개체가 추운 겨울에도 과량하게 자라고 있다. 이 식물체들은 2010년 교배해 얻은 종자는 2011년 여름에 재배해 출수(出穗) 직전에 꽃가루를 채취해 배양한 것들이다.

이 벼들은 2월에 출수해 4월 말 종자를 얻고 다시 올 6월에 논에서 재배해 우량계통을 선발하게 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연구소 신서호 소장은 "올해 도내 5개 시·군의 벼 조기재배 단지에서 농가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적응 시험을 3년간 실시한 후 신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세얼굴

"농업인에 무한봉사로 감동 선사"

심재록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저수지 둑높임사업 등 주력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하고, 농업인에게 무한 봉사를 통한 고객감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심재록(55)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은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고객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 출신인 심 지사장은 광주농고와 광주대·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본사 시설관리팀장·전남지역본부 사업관리팀장·본부 기반관리팀장을 역임했다. 또 건설안전기사·재난관리사·재난관리 지도사 등 주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국립공원 월출산 사무소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정장훈)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다음달

까지 실시한다. 월출산사무소는 최근 총기와 불법 업구, 독극물 등을 이용한 불법 밀렵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농한기를 맞아 밀렵·밀거래 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와 야간 순찰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담양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2014년까지 국비 등 80억 투입

수질개선 통해 생태환경 조성

역사와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곳은 사업구간 지대가 낮아 매년 홍수 때마다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조성예정인 인공 생태습지가 홍수 조절지 역할을 수행,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인근의 공장, 음식점, 주택 등의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이번에 설치되는 인공 습지에서 재정화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생물 서식지와 생태계 복원 등 괘적인 생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전천의 경우 인접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사주와 어울, 웅덩이 등 자연형 하천경관을 갖추고 있다"며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군민의 괘적인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

시카드립니다.

기증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 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 설치를 못하고 자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 062-512-1180 / H.P 011-659-7001

"농·수·축 소득증대 제1 목표"

"정직과 친절, 화합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군민 소득 증대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박군조 강진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종합 대상(대통령상)을 받는 등 각종 대외평가에서 44건에 21억 원의 상금을 수상했고, 공모·시범사업에서 20건에 2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는 군민 소득증대를 군정의 제일의 목표로 삼고 800여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로 뜻을 뭉쳐 지역의 혁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군조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군수 보궐선거, 12월 대통령 선거가 군민들의 화합 속에 공정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업무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산하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조망의 원칙을 강조했다.

박군조는 안정 속에 중단없는 군정 수행을 위해 ▲농림·축·수산업의 지속 성장 ▲청자산업 활성화와 2014년 청자엑스포 추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및 교육 발전 ▲고객 중심의 복지 실현 ▲성전면 환경단지와 철량면 제2농공단지 조기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4개 분야(일반 행정·농업·문화관광·지역개발) 20명으로



고소득 부농프로젝트 추진

'강진 된장' 명품화 육성

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TF팀을 통해 군민 소득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 혁안사업을 발굴해 지역혁신을 위한 국비 확보에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농림·축·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고소득 농업인, 친환경 고소득 축산인과 임업인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2012-300 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경쟁력 생산단지와 웰빙 애생초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해 고소득 원예작물 집중 육성, 텁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강진된장 명품화 사업'과 '1 음면 1 가공공

장'을 연차적으로 육성해 농가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삶이 좋은 진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 밸브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작물, 유통 등 3개 분야 55개 사업에 대해 대책반을 구성해 밤 빠르게 대응하고, 군 자체 예산을 적극 투입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강진 청자축제'와 2014년 '청자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자촌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군조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생활안정과 따뜻한 군정을 실현해 나가는 것과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 11개 종목·30여 개 대회와 전지 훈련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군조는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사업과 ▲가우도 출렁다리 조성 ▲성전 일반 산업 단지 조성 ▲강진 철량 제2농공단지 조성 ▲가지내 터널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 활기찬 강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군조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발로 뛰고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생생한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화순 동복 숲속에 차 문화관 개관

차관련제품 전시·시음장 등 갖춰

화순군 동복면 연둔리 금정이 인근에 최근 '차(茶) 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자연체험 학습장인 '개미와 배팡이'(옛 동복 남초등학교)로 활용됐던 건물에 '천지연'이란 이름의 차 문화관이 개관했다.

차 문화관에는 다양한 차 관련제품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찾았을 때부터 맡길 수 있는 각종 차를 직접 시음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돼 있다.

조영동 '천지연' 차 문화관은 "앞으로 이곳에 세계 차박물관을 만들어 전국의 다인(茶人)들과 교류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남도의 멋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승수기자 css@

장흥군수협 불우한 조합원돕기

'사랑해 이웃찾기' 사업 큰 호응

장흥군수협(조합장 사홍만)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등 불우한 조합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사랑해 (海) 이웃찾기'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수협은 지난 11일 장흥지역 관내 42개 어촌계에서 추천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100명의 불우한 조합원 가구를 선정, 가구당 쌀(10kg 1포대)·라면·식용유 등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홍만 조합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어촌지역의 소외 이웃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수협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